

한미약품, 고소전 이어 '기부금 논란'... 경영권 분쟁 심화

주총 앞두고 의결권 쟁탈전
형제·3자 연합, 팽팽한 공방
재단 독립·공익성 보장 충돌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다툼이 그룹 내 재단에 대한 기부금 논란으로 퍼졌다. 한미약품그룹 내 가현문화재단 및 임성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8.09%인 만큼, 양 측은 재단 의결권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미약품그룹의 3자 연합 측은 임시 형제 측의 고소·고발에 대해 "경영권에 눈이 먼 형제들이 정권변경 특별결의가 두렵고 초조해 인륜을 저버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는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를 앞세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고발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다. 의약품 유통업체인 코리그룹은 임종윤 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형제 측 인물로 분류된다.

형제 측은 해당 고발에서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19억원 상당의 기부금이 제공되면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

스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3자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혐의는 위계 및 업무방해다. 3자 연합 측이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 주주관리와 주주총회 진행에 필요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3자 연합 측은 형제 측이 문제 삼은 가현문화재단에 2022년 기부된 42억원, 2023년 60억원, 올해 상반기 17억원 등 총 119억원에서 절반 가량이 52억원은 A 전 대표이사 시절 기부됐다는 점을 짚었다.

3자 연합 측은 "의도적으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몰아세우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고소한 것"이라며 "현재 A 전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와 임종윤 사장 개인회사 디엑스앤비엑스(DxVx)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임종윤 이사의 밀도 끝도 없는 고발에 A 전임 대표이사부터 조 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자 연합 측은 "재단은 설립 후 지난 20여년간 법적 문제 없이 한미의 기부를 통해 운영돼 왔다"며 "심지어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재단 기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종윤 전 대표이사는 약 76억원을, 임종훈 전 대표이사는 9억원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자 연합은 '공익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자 연합 측은 재단이 독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해당 이사회 구성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형제 측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이사회 결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확약서를 써줄 때까지 기부금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발송했다. 확약서를 써주는 순간 의결권과 기부금 간 거래 행위가 완성돼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3자 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이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를 전개해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했다. /광동제약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
'대학생 모델' 선발
활기찬 이미지 강화

광동제약은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건강한 V컷 화보 모델' 프로젝트는 대학생 모델 선발 공모전으로 대학생들이 모델과 사진작가로 참여했다. 총 190여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독창적이고 신선한 각양각색의 작품을 선보였다.

최종 1위로 선정된 작품은 '고향에서의 여유'를 핵심 주제로, 학업에 지친 대학생이 옥수수수염차와 함께 휴식을 찾는 모습을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냈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감각적인 연출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표현력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AK그룹, 고준·이강용 대표 선임 전략통·현장 전문가 리더십 구축

변화·성장 위한 2025년 인사 단행
부사장·전무·상무 등 총 11명 선임

애경그룹은 고준 AK플라자 대표이사를 선임 AK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애경그룹은 AK플라자 대표이사에 이강용 AK플라자 상품본부장을 신규 선임하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승진 3명, 상무보 신규 선임 6명 등 총 11명에 대한 2025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표이사 임명 일자리는 오는 12월 1일로, 임원 선임 및 승진 발령일자는 2025년 1월 1일이다.

신임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1973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과 카이스트 화학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고준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거쳐 지난 2018년 애경에 합류했다. 애경그룹에 따르면 그는 지주회사 AK홀딩스에서 전략 기획을 총



고준 AK홀딩스 대표



이강용 AK플라자 대표

괄하며 변화를 주도해 온 '전략통' 인사로 알려졌다.

특히 고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1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AK플라자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신임 이강용 AK플라자 대표이사는 1970년생으로 인하대학교에서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7년 당시 애경백화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바이어로 시작해 원주점장, 분당점장, 상품본부장까지 두루 거친 순수 '애경맨'이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타미플루' 국내공급 계약 체결

HK이노엔이 한국로슈와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이달 14일부터 한국로슈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

'타미플루'는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플루엔자(A형, B형)의

바이러스 방출을 억제해 감염을 치료한다.

인플루엔자(독감)는 감기와 달리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에서 합병증을 발생시키거나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 혹은 일부에 한 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HLB, 간암 치료제 글로벌 진출 청신호

FDA 비모 실사 '규정 준수' 확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는 '간암 신약허가' 재신청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생물연구 모니터링인비모(BIMO)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NAI)'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비모 실사는 미국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실사 주요 내용에는 연구 시설의 기록과 데이터 확인, 연구자 및 연구스태프 인터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료와 물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HLB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HLB가 간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두 개의 임상병원 중 두 곳을 추가로 해당 실사를 진행했고,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실사 결과는 간암 신약허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HLB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미국 FDA 문턱을 넘겠다는 방침이다. HLB 측은 "간암 신약허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 실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CMC(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는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의약품이 일정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음을 문서화해 입증하는 것이다.

HLB는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립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 재승인 신청을 완료해 이달 안에 승인 허가 여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골든블루, 하이볼 중심 위스키 시장 공략

㈜골든블루인터내셔널은 미국 증류주 기업 사제락컴퍼니(Sazerac Company)와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얼리타임즈(Early Times)'의 판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제락컴퍼니는 미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1위 증류주 기업으로, 1850년 창설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에 총 8개 증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500여개 이

상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양사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얼리타임즈의 주요 판매 타겟을 MZ세대로 맞췄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국내 위스키 시장 역시 특별한 경험이 가능한 제품들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F 이자벨마랑
'25 SS 컬렉션' 선보여
보헤미안 스타일 제시

생활문화기업 LF의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이 2025년 봄·여름 제품군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자벨마랑은 프랑스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매 시즌 보헤미안 감성을 담은 프랑스식 세련미를 제안해 왔다. 지난 9월 파리패션위크 런웨이를 통해 2025 봄·여름 제품군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욱 강렬해진 보헤미안 룩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신상 제품군은 열대 지방의 대자연 분위기에 이자벨마랑의 장인정신을 더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나비를 표현한 비단 원사 패턴과 팔러리는 장식 등 야생을 연상케 하는 생동감 있는 디테일을 강조했다.

LF에 따르면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21일 청담 플래그십 매장에서 이자벨마랑 2025년 봄·여름 신제품 사전 공개 행사도 진행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자벨마랑 25SS 컬렉션 공개. /LF